

학교급식 납품농가 코로나19에 '직격탄'

개학연기에 전국 1200여 곳 납품 농가 전년비 9.3% 매출 하락 곡식 10.9%·채소 13%·수산물 13.5% 등 3억원 넘게 감소 농협 전남본부, 나주·고흥 한라봉 등 수도권 특별 판매지원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전국 1200여 곳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전남 농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부 과일 농가는 매출액이 지난해의 5분의 1로 떨어지면서 농협이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등지에서 특판에 들어갔다.

9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2월29일 전남 농가의 학교급식 매출은 37억1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 40억9300만원 보다 3억800만원(-9.3%) 떨어진 금액이다.

전남지역 농가는 전남과 광주, 서울 등 수도권을 기반으로 초·중·고교 790개, 유치원 224개, 어린이집 210개 등 1224개 교육기관에 단체 급식 재료를 납품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곡류와 채소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올 1-2월 친환경 쌀 등 곡류 매출액은 9

억400만원으로, 지난해(10억1500만원)에 비해 1억1100만원(-10.9%) 손해를 냈다.

채소 매출 역시 지난해(8억4700만원)보다 1억1000만원(-13%) 떨어진 7억3700만원에 그쳤다.

축산물 매출은 -9.3%(5100만원 ↓), 수산물은 -13.5%(2100만원 ↓), 가공품 -7.8%(7100만원 ↓) 등도 적자를 냈다.

전남본부 관계자는 "예년 1-2월에는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에 급식 수요가 있어 매출 낙폭이 커보이지는 않았다"면서도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상품 출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과일은 지난해 4억5200만원에서 올해 4억2000만원으로, 5000만원(-11.1%) 손해를 냈다.

실제 친환경 한라봉을 재배하는 나주 남평농협의 올해 1-2월 납품 금액은 1800만

■ 전남 농가 학교급식 매출 현황 <단위:억, %>

	곡류	과일	채소	축산물	수산물
2019	10억1500만	4억5200만	8억4700만	5억4600만	1억5500만
	↓ 10.9	↓ 11.1	↓ 13	↓ 9.3	↓ 13.5
2020	9억400만	4억200만	7억3700만	4억9500만	1억3400만

* 1월1일-2월29일 기준,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자료:농협 전남지역본부>

원으로, 지난해(1억300만원)의 17.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개학 예정일(23일) 전날까지 예상되는 매출 감소액은 6400만원에 달한다. 한라봉 외에도 남평농협이 학교에 납품하는 대파·피망·시금치·부추·가지 등 친환경 농산물 매출 감소 예상액은 1억4000만원에 달한다.

고흥 풍양농협도 지난 달 이후 만감류를 전혀 출하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렌지 출하시기와 겹치면서 9일 현재 한라봉 18t, 천혜향 10t이 재고로 쌓여있다.

농협 전남본부는 학교급식 납품을 위해 계약재배한 과일 농가를 위해 오는 22일까

지 수도권 중심으로 특별 판매지원을 추진한다.

전남본부는 예산을 긴급 편성해 나주·고흥지역 한라봉 20t과 딸기를 서울 양재·성남 하나로마트와 하나로클럽마트 성남점 등 대형점포에서 판매한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과일 외에도 염채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위축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54.77 (-85.45)
- ↓ 금리(국고채 3년) 1.04 (-0.04)
- ↓ 코스닥 614.60 (-28.12)
- ↑ 환율(USD) 1204.20 (+11.90)

광주은행,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5억원 특별출연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왼쪽)은 최근 기술보증기금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소재·부품산업 혁신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5억원을 특별 출연했다. 기술보증기금은 광주은행 특별출연금으로 피해기업에 총 100억원 보증을 지원하고 최대 1.0%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상의 '지역 발전' 담은 총선 공약 12개 과제 제시

광주상공회의소는 9일 광주·전남 지역 발전을 위해 21대 총선 후보자와 지역 사·도당에 바라는 12개 과제의 지역발전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광주상의가 발표한 지역 주요 과제에는 ▲광주형일자리사업 안착 지원 ▲인공지능(AI) 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 성공적 조성 ▲자동차 특화 및그린 산단 성공적 조성 ▲광양합중합지원센터 건립 ▲광주권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조속추진 ▲광주권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포함됐다.

또 광주·전남 상생협력 과제에 ▲광주군공항 이전의 조속한 추진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광주·전남 에너지 산업융합복합단지 성공적 조성 등도 포함됐다.

이외 기업활력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를 기업 현장의 애로개선을 과제로 제시했다.

광주상의는 12개 과제 지역발전 정책 제안을 각 사·도 정당 및 후보자에게 21대 총선 공약으로 반영토록 곧 전달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 국내 최초 수소저장 액체기술 실증 성공

누수 없이 장기간 저장 가능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이 국내 최초로 '수소저장 액체기술'(LOHC)로 기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실증에 성공했다.

한전은 시간당 20N㎥(노멀 입방 미터)의 수소를 저장하는 '수소저장 액체기술' 실증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체적 20N㎥는 수소 무게로 따지면 1.8kg에 해당한다. 수소 전기가 1대당 약 5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수소저장 액체기술' 수소 100l는 수소차 1대를 충전할 수 있다. 한전은 수소를 1년 이상 저장해도 누설량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소저장 액체기술'은 일정한 조건(50~180도의 온도·대기압 50배의 압력)에서 수소를 수소저장 액체인 디벤질톨루엔(DBT)과 촉매에 반응시키면 액체화합물에 흡수돼 저장되는 원리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최신 기술로, 연구 대부분이 1N㎥ 소규모에서만 이뤄지는 기초연구 수준에 머물렀다. 수소를 250도 이상의 온도와 대기압의 약 3배 조건에서 촉매와 반응시키면 저장된 액체에서 다시 수소가 분



'수소저장 액체기술'(LOHC) 설비 작동 모습. <한전 제공>

리되고 분리된 수소 저장 액체는 재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 중인 수소 저장기술은 대기압 200배 이상의 높은 압력에서 수소를 압축·저장해야 하고 탱크로리로 운송해야 하는 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 기술을 활용하면 수소를 액체화합물 안에 저장해 안전한 저장과 수송이 가능하고 수송 비용도 저렴하다고 한전 측

은 설명했다.

한전은 또 처음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해당 기술이 적용된 수소저장설비에 대한 고압설비 일반제조시설 기술검토서와 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받았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보탬이 되도록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모집

중소기업 최대 1억까지 수출상담회 참여 우대도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 상생형과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중기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와 2018년부터 진행해온 사업이다.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 삼성전자가 5년간 매년 100억원, 정부가 1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참여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의 경우 유형별 최대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소기업은 최대 2000만원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기관리지역 기업, 장애인기업, 뿌리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은 우대 대상이다.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대한 정부 조달 입찰시 가점을 받고, 손해공제·PL 단체보험 보험료 인하, 휴먼소싱·수출상담회 참여 우대 등 제공된다.

이밖에 200명 규모 삼성전자 현지 제조 전문가의 제조현장 혁신활동 멘토링

을 통해 대기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판로개척을 위한 스마트 비즈니스 포 참가, 아리랑TV 영상제작, 특허개방 등도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부족사태 극복을 위해 마스크 제조기업 신청시 '스마트공장 구축'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유사 제조공장·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에게 공통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50% 이내에서 신규구축은 최대 1억원, 고도화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투입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에서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게 돼 자부담을 경감했다.

업종별 회원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참여의향이 있는 회원사들을 대표해 참여의향서 제출, 공통물류선 발굴, 프로젝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협동조합도 사업대상에 포함돼 스마트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